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얼마 전 저희에게 참 과분하고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일가재단에서 주관하는 제36회 일가상 시상식에서 농업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일가상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난 26년 동안 캄보디아 이삭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삶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성경을 읽으며 가난한 농민과 약자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제 손으로 직접 벼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농부의 삶을** 경험했고, 가난한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과 NGO 사역에 참여하며 **목수와 사회 운동가**로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의 중심에는 초대교회의 회복과 희년 사회 실현을 꿈꾸는 **무소유 공동체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르심에 응답하며 2000년에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고, 어느덧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여정에 이번 일가상이 하나의 이정표처럼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을 결코 저와 아내에게 주는 개인의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받은 상이라기보다, **부족한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의 기도와 사랑이 함께 만들어 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일가(一家) 김용기 선생은 평생 민족과 농촌,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1962년 가나안농군학교를 세워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고, 빈곤 극복과 의식 개혁, 자립과 공동체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일가(一家) 선생께서 1988년 타계하신 후, **“이 땅에 제2, 제3의 작은 김용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뜻을 이어가기 위해 1989년 일가재단이 설립되었고, 1990년부터 일가상이 제정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국의 잠롱 스리무앙 전 방콕시장, 풀무학원 주형노 전 이사장, 선·정혜영 부부 등 농촌과 사회, 나눔과 봉사의 길을 걸어온 많은 분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전 수상자들의 삶과 발자취를 생각하면 저희에게는 참으로 과분한 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을 지난 삶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앞으로의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더 책임 있게 살아가라는 격려와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 수상 소식을 캄보디아 이삭공동체 식구들에게 전했더니, 한국에서 생각하는 일가상의 의미보다는 “상금이 있다”는 소식에 더 크게 환호했습니다. 상금으로 양계장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며 모두가 무척 기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이삭공동체에서는 ‘한알의 기적, 이삭 유정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300명의 아이에게 매일 한 알의 유정란을 먹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500마리 닭을 구입했고, 매달 정기 모금액(450만원)의 18% 정도가 모금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양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가상 상금이 양계장 짓는 비용의 70%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 위의 가나안과 하늘의 영원한 가나안을 만들고자 하셨던 일가(一家) 선생의 소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수상이 사람의 영광으로 머물지 않고, “한알의 기적, 이삭 유정란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자기 삶과 마을을 변화시키는 캄보디아의 작은 일가(一家)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2026년 9월 캄보디아 이삭공동체에서 김기대 류소현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NP73ADyOs1Q>

(저의 일가상 수상 소감 영상입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go.MissionFund.org/isacegg>

(한 알의 기적 이삭 유정란 프로젝트 정기 후원 링크입니다. 클릭하시면 단기 정기 후원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이삭 유정란 프로젝트 팸플렛을 잘 살펴봐 주시고 주변에 홍보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에겐 영양공급을, 이삭 양계는 자립을, 자립한 이삭 양계는 장학금 지원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시죠.^^



세 가지 선순환

단순한 일회성 구호를 넘어
건강한 자립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축복의 순환입니다.

**1 영양 공급 (Nutrition)**

300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가장 신선하고 안전한
자연식 친환경 유정란을 공급하여
균형 잡힌 성장을 완성합니다.

**2 공동체 자립 (Sustainability)**

유정란은 이삭공동체 내부 '이삭 양계팀'에서
정성스레 직접 생산하며
현지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안정된 고정 수입을 제공합니다.

**3 장학금 환원 (Scholarship)**

양계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정직한 수익금은
전액 형편이 어려운 현지 DFIS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귀하게 재투자됩니다.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캄보디아 DFIS 급식 시스템 구축과
이삭 유정란 배급에 정직하게 집행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법인)

국민은행 068-25-0015-971

사단법인 미션컴온 그라운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일반 후원 계좌

하나은행 112-18483-650

김기대 (일반 후원 계좌)

미션펀드로 간편 정기후원

<https://go.missionfund.org/isacegg>



김기대
lovecambodia1





하루 한 알의 기적

이삭 유정란 프로젝트



“ 캄보디아 DFIS 아이들의
건강한 내일을
온 몸과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



배움, 그 이상의 감동이 피어나는 식탁

새롭게 완공된 DFIS 식당은
아이들이 영성과 삶의 가치를 배우는
가장 따뜻한 교육의 터전입니다.



Thanks to God (하나님 감사)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 풍성하고
든든한 일용할 양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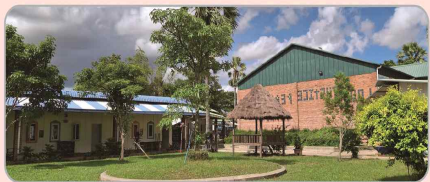
Thanks to Hands (도움의 손길)

수확의 땅방울을 흘린 농부와
이 식탁을 차리고 헌신해 준 모
든 아름다운 이웃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Thanks to Soil (자연과 대지)

따뜻한 햇살과 맑은 공기, 축축한 단비와 영양을
아낌없이 베풀어 기적을 길러내 준
푸른 자연에 감사합니다.



왜 '하루 유정란 한 알'일까요?

성장기 영양 불균형을 해결할
가장 완벽하고 직관적인 자연식 솔루션입니다.



체격 향상 및 두뇌 성장

신체 성장과 두뇌 발달에 필수적인
최고급 아미노산 및 단백질 공급원



집중력과 오전 활력 증가

오전 수업에 지치고 기운 없던 아이들의
눈빛과 집중력이 살아나는 변화



면역력과 신체 방어막 강화

면역 결핍과 질병치레를 씩씩하게 이겨내는
튼튼한 천연의 신체 방어막 구축



"하루 단 한 알, 최소 3개월의 기적"

영양 결핍을 극복하고 성장기 평생 건강을 바꾸는 약속



15,000원으로 지켜주는 한 아이의 한 달

커피 몇 잔을 아끼는 작은 정성으로
한 생명의 찬란한 기적을 만듭니다.



프로젝트 수혜자 목표

수혜 대상: 총 300명

(DFIS 재학생 250명 + 이웃 공립학교 학생 50명)

합리적이고 정직한 단가

유정란 한 알 판매가 500원 × 30일

월 15,000원



지속 공급 참여자 목표

목표 동행자: 정기 후원자 300명

(매달 15,000원으로 기적을 선물할 정기 후원자 300명 모집)



"커피 단 세 잔의 가격이면
캄보디아의 한 자녀가 온전히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하게 꿈꿀 수 있습니다."

